

7월 8일 ~ 14일

재미로 보는 운세



36년생 고생은 하지만 이익은 많지 않다. 48년생 작은 이익에 만족해야 할 때이다. 60년생 조금이라도 일이 잘 풀리면 만족하라. 72년생 다른 사람이 포기한 일을 성공시킨다. 84년생 노력만 하면 반드시 결론이 날 것이다. 96년생 정리정돈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37년생 다툼은 해결 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49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61년생 사소한 실수가 부부싸움을 불러온다. 73년생 바르게 행동하니 따르는 사람이 많다. 85년생 작은 것에서 착오가 생기게 된다. 97년생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중에는 이득이 생긴다.



38년생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50년생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손해를 안 본다. 6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74년생 공과 사를 구분을 잘해야 손해가 없다. 86년생 주변 사람의 일이라고 특별하게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98년생 끝이 없다고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



39년생 소비를 잘해야 남는 것도 있는 것이다. 51년생 규칙에 억매이면 일을 잘 할 수 없다. 63년생 모든 일에 일관성이 있어야 성공한다. 75년생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이익이 있다. 87년생 다른 사람의 일이 더 쉬워 보이는 법이다.



40년생 적당한 시기에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52년생 중용을 지킬 때 안정이 보장되는 시기다. 64년생 계획이 너무 많아서 이루기 어렵다. 76년생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88년생 어려운 일도 무사히 정리가 된다.



41년생 모든 일에 주의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 53년생 노력을 해야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65년생 쉽게 포기하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77년생 능력 있는 후배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한다. 89년생 일이 잘못된 것이 자신의 탓만은 아니다.



42년생 너무 튀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54년생 일의 순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66년생 경험이 많은 만큼 실수도 줄어든다. 78년생 어려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풀린다. 90년생 복잡한 일이라도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43년생 참고 견디면 그만큼 이익이 생길 수 있다. 55년생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시기이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79년생 너무 나대면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된다. 91년생 작은 성취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44년생 생각지도 못한 귀인이 도움을 준다. 56년생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라. 68년생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니 침착해야 한다. 80년생 말조심을 하지 않으면 목을 먹는다. 92년생 어려운 도전 보다는 당장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45년생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존경받는다. 57년생 기초가 튼튼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69년생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81년생 동료 배반하면 결국 손해를 본다. 93년생 남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46년생 욕심이 너무 많으면 뒷감당이 어렵다. 58년생 이득수가 있으니 집에만 있지 마라. 70년생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집중하라. 82년생 일이 끝난 뒤에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한다. 94년생 좋은 일이 있는 뒤라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47년생 소문에 휘둘리면 고생을 하게 된다. 59년생 가까운 사람을 믿어야 고생을 안 한다. 71년생 급할 때에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좋다. 83년생 실수를 했다면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 95년생 자신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잊어야 한다.

제공 : 당신의 멘토, 운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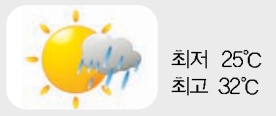
주간 일기예보

출처:네이버 날씨

7월 4일 목요일



7월 5일 금요일



7월 6일 토요일



7월 7일 일요일



7월 8일 월요일



7월 9일 화요일



시사상식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Swap) 거래는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현재의 환율(양국 화폐의 교환 비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킨다. 또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가리키기도 한다.

▶방식 및 효과: 국가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 간 신용계약이다. 즉, A국가에서 외환보유액이 바닥나 환란상태에 직면했을 경우 B국가에서 돈을 빌려오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자기나라(A국) 화폐를 B국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다. 예컨대 1월 1일 1,300원을 내고 1달러를 빌리면, 만기일의 환율이 1,500원이든 1,000원이든 상관없이 1달러를 갖고 다시 1,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 차입이지만 돈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통화교환이 되며,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 간 통화스와프의 경우 ▷캐나다(사전환도 없음) ▷스위스(106억 달러 상당) ▷중국(590억 달러 상당) ▷호주(81억 달러 상당) ▷말레이시아(47억 달러 상당)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상당) ▷아랍에미리트(UAE) 54억 달러 상당) ▷튀르키예(20억 달러 상당) ▷일본(100억 달러) 등과 맺고 있다(미국과는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2021년 12월 만기). 이 밖에 차양미이 아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이용자만족도 푸른방송 전국 1위



한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현명한 선택
결합 상품



지금바로! (053) 551-2000 www.gcs.co.kr